

배우 한보름 “첫 주연 부담감·압박감 컷죠”

MBN 수목드라마 ‘레벨업’ 중영 “많이 배웠다”



배우 한보름이 ‘레벨업’으로 첫 주연을 맡아 부담감이 컸다고 털어냈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드라마 ‘레벨업’ (연

출 김상우, 극본 김동규) 출연 배우 한보름 중영 인터뷰에서 그는 작품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한보름은 “드라마가 사전 제작이어서 끝났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드라마 자체가 끝나니까 진짜 마쳤다는 생각이 든다. 영화를 잘 보내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것에 대해 “부담이 엄청 컸다. 절대 내가 패를 끼치면 안 되니까 준비도 많이 하고... 최대한 잘해야겠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걸 풀어갔다. 감독님, 작가님, 성훈 배우님도 많이 이끌어주고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많이 배웠다”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그렇지만 한보름은 “주연”이라는 자리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될 거 같다. 나는 크게 잘된 적이 없다.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게 목표다. 지금 주연을 했다고 해서 또 주연해야지” 그런 건 없고 그냥 조금씩 ‘레벨업’을 했으면 좋겠다. 주-조연 상관없이 연기적으로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사전을 밝혔다.

한편 한보름은 지난 15일 중영한 ‘레벨업’에서 부도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인 연화로 분해 전내 나는 현실 직장인의 모습과 위로를 부르는 눈물 연기 등으로 공감을 높이며 캐릭터가 가진 매력을 훌륭히 살려냈다.

특히 한보름은 당당하고 씩씩한 신연과 캐릭터를 사랑스러운 비주얼과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그려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뉴스1



영화 ‘타짜: 원 아이드 잭’ 8인 8색 캐릭터 포스터 공개

영화 ‘타짜: 원 아이드 잭’(권오광 감독)이 포커에 인생을 베푼 타짜들의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한다.

20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타짜: 원 아이드 잭’의 캐릭터 포스터에는 8명 등장인물의 성격이 반영돼 있다.

전설의 타짜 짝꿍의 아들인 일출(박정민)은 낮에는 고시 준비생이지만 밤이면 타고난 재능으로 포커판을 누비는 신출내기 타짜다. 공개된 포스터는 이제 막 타짜의 길로 접어든 일출의 자신만만한 모습을 포착했다.

일출을 진짜 타짜들의 세계로 이끈 애꾸(유승범)는 범상치 않은 외모와 포커로 ‘원 아이드 잭’ 팀의 설계자임

을 드러낸다. 애꾸가 일출과 함께 불러 모은 타짜들도 만만치 않은 포커 선수인듯. 특출난 손기술은 물론 애정이 넘쳐나는 사랑꾼 끼치(이광수)와 뛰어난 연기력을 무기로 팀의 멀티 플레이어로 활약하는 영미(임지연), 도박판에서 전배가 굶은 권원장(권해효)까지 각기 다른 재능과 무기를 지닌 이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누구든 이길 수 있는 ‘원 아이드 잭’ 팀으로 뭉친다.

더불어 ‘원 아이드 잭’ 팀이 상대해야 하는 또 다른 타짜들의 캐릭터 포스터도 공개돼 긴장을 더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마돈나(최유화)는 중요한 순간마다 일출 앞에 나타나 게임의 판을 뒤엎는다. ‘원 아

이드 잭’의 타깃이 된 졸부 불영감(우현)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 ‘원 아이드 잭’ 팀의 계획대로 일이 성사될지 궁금증을 더한다. 마지막으로 포커판의 검은 손 이상무(윤제문), 일출을 진정한 타짜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그로 인해 일출은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 속 8인의 타짜들은 서로 다른 매력과 기술로 포커판을 장악한다.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만나게 되는 8명의 타짜가 어떤 긴장과 스릴 넘치는 한판을 보여줄지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타짜: 원 아이드 잭’은 9월 11일 개봉한다. 뉴스1

구혜선·안재현 이혼 위기→소속사로 논란 확산·HB “강경 대응”

배우 구혜선(35) 안재현(32) 부부의 이혼 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이로 인해 논란에 휩싸인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18일 구혜선은 안재현과의 불화를 언급하며 이혼 위기를 고백하며 파문을 일었다. 구혜선은 이날 자신의 SNS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보도기사를 낸다고 하여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진실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안재현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게재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안재현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당신이 준 합의서와 언론에 올릴 글 다음 주에 내겠다고 ‘신서유기’ 축하 말했다”, 합의된 일이고 서류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구혜선은 상대방에게 “엄마 상태 보고 하자, ‘내게 신서유기’가 엄마 상태보다 중요하진 않다”, “인정사정 없이 굴면 나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구혜선 안재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많은 분들의 격려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두 배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구혜선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 8월 중으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9월에는 이혼에 관한 정리가 마무리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HB는 구혜선이 직접 적은 것으로 보이는 보도자료 초안을 공개하며 “구혜선의 SNS 게시글과 이를 인용한 기사를 접했고 안재현 및 당사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혜선은 소속사의 입장을 즉각 반박했다. 그는 다시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공식 보도자료가 오고 갈 것을 예상하여 어제 급히 내용을 올렸습니다. 타인에게 저를 욕한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혼 이야기는 오고 갔으나 아직 사인하고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저와는 상의되지 않은 보도입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재현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는 구혜선이 “이사님 만나 이야기 했는데 당신이 대표님한테 내가 대표님과 당신이 나를 욕한 카톡을 읽은 것. 이로써 부부와 회사와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전달했다고 들었어. 회사에서 우리 이혼 문제 처리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원하면 계약 해지해 주시겠다고 해서 내가 회사를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 나가면 바로 이혼 소문 날까봐나 나도 당신 원하는 대로 바로 이혼 하려고 해. 그런 내가 회사도 나가고, 이혼을 하면 일이 없게 되나”라며 “사유는 이전과 같아. 당신의 변심. 신뢰 훼손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하길”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HB엔터테인먼트



구혜선(왼쪽), 안재현

는 19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다시 입장을 밝혔다. “당사는 최근 소속 배우 두 사람에게 개인사 부분에 대한 의논 요청을 받았고 일만하고 평화로운 결론을 위해 실무적인 조언을 해줬다”면서도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입장의 차이가 있는 일을 조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누구보다 두 사람의 이별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결국 평행선에 있던 두 사람의 마음이 내린 결론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일들은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생각이고 당사가 두 사람의 소속사로 앞으로 두 사람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면서 “현재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고 여러 온라인 포털사이트 및 SNS 등에 소속 배우 및 당사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악성 댓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합의나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P, 유튜브와 손잡고 트와이스 콘텐츠 제작

韓 걸그룹 최초

JYP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와 함께 트와이스를 주인공으로 한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한다. 트와이스는 국내 걸그룹으로서는 최초다.

2019 월드투어 현장과 멤버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 중심으로 촬영되

고 있는 이번 유튜브 오리지널은 늘 밝고 활발한 웃음으로 팬들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심어준 트와이스 아홉 멤버의 이면을 담아낸 예정보다 더욱 흥미롭다.

데뷔 후 지금까지 4년여 동안, 성장을 위해 흘려야 했던 땀과 눈물, 숨은 노력, 또 이러한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이 오롯이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한창 촬영 중인 트와이스의 유튜브 오리지널은 올해 나머지 촬영 및 후반 작업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팬들에 공개된다.

트와이스는 2019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서울, 방콕, 마닐라, 싱가포르 등 아시아에 이어 지난달 17일 LA를 시작으로 4개 도시에서 진행한 미주 투어, 또 쿠알라룸푸르까지 총 9개 지역, 10회 공연을 성료하고 강력한 글로벌 팬덤을 입증했다. 뉴스1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